

전자예술 국제전시

thisAbility vs. Disability

창의적 감각으로 장애를 만나다.

초대작가

Mika Fukumori

Haru Ji (지하루) & Graham Wakefield

Jae Min Lee (이재민)

Mian Sheng Lim (Leon)

Haemin Kim (김해민)

Kichul Kim (김기철)

Pauline Oliveros, Leaf Miller,

Zevin Polzin, & Zane Van Dusen

David Parker

Jin Wan Park (박진완)

Dmitry Strakovsky

전시 기획자 | Byeong Sam Jeon (전병삼)

후원

한국문화예술진흥원, Middle Corea

장애여성문화공동체

협력 | 미지아트

전시 웹사이트

<http://www.thisAbility-Disability.net>

토탈미술관

TMCA | Tot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465-16, (우)110-848

전화 82 (0)2 379 3994 | 팩스 82 (0)2 379 0252

info@totalmuseum.org

totalmuseum@hotmail.com

t h i s A b i l i t y
vs. D i s a b i l i t y

international electronic art exhibition | thisAbility vs. Disability

<thisAbility vs. Disability>는 창의적 감각 전이를 통해 바라보는 장애를 주제로 한 전자예술 국제전시회입니다. 바람의 감촉을 통해 손으로 보는 그림, 얼굴을 움직여 연주하는 디지털 악기, 관객의 목소리를 움직임으로 표현하는 로봇, 손의 터치를 빛으로 변환하는 테이블, 시각장애인의 점자를 소리로 들려주는 블록, 관객의 심장박동으로 연주하는 화합의 중 등 국내외 전자예술가 총 열 팀의 흥미진진한 작품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보세요.

일시 | 2008년 07월 22일(화) - 08월 24일(일)

초대일시 | 2008년 07월 22일(화) 오후 6시

관람시간 | 오전 10시 - 오후 6시 (월요일 휴무)

<장애여성문화공동체와 함께하는 아티스트 워크숍: 창의적 감각으로 장애를 만나다>

일시 | 2008년 07월 26일(토) 오후 3시 - 5시

장소 | 토탈 미술관 본관 B층 전시관

교통편 안내

버스 | 110, 153, 1020, 1711, 7211, 롯데삼성아파트 역 정류장 하차 후 도보로 5분 소요거리

지하철 3호선 | 경복궁역 3번 출구에서 버스 1020, 1711 승차

지하철 4호선 | 길음역 3번 출구에서 버스 153, 110 승차

지하철 5호선 | 광화문역 3번 출구에서 버스 1020 승차



Bus | # 110, 153, 1020, 1711, 7211

Subway

line #3 | Kyeongbokgung station (Exit #3) -> Bus #1020 or #1711

line #4 | Gireum station (Exit #3) -> Bus #153 or #110

line #5 | Gwanghwamun station (Exit #3) -> Bus #1020

전자예술 국제전시

thisAbility vs. Disability

창의적 감각으로 장애를 만나다.

초대작가

Mika Fukumori

Haru Ji (지하루) & Graham Wakefield

Jae Min Lee (이재민)

Mian Sheng Lim (Leon)

Haemin Kim (김해민)

Kichul Kim (김기철)

Pauline Oliveros, Leaf Miller,

Zevin Polzin, & Zane Van Dusen

David Parker

Jin Wan Park (박진완)

Dmitry Strakovsky

전시 기획자 | Byeong Sam Jeon (전병삼)

후원

한국문화예술진흥원, Middle Corea

장애여성문화공동체

협력 | 미지아트

전시 웹사이트

<http://www.thisAbility-Disability.net>

토탈미술관

TMGA | Tot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465-16, (우)110-848

전화 82 (0)2 379 3994 | 팩스 82 (0)2 379 0252

info@totalmuseum.org

totalmuseum@hotmail.com

t h i s A b i l i t y
vs. D i s a b i l i t y

international electronic art exhibition | thisAbility vs. Disability

<thisAbility vs. Disability>는 창의적 감각 전이를 통해 바라보는 장애를 주제로 한 전자예술 국제전시회입니다. 이번 전시는 바람의 감촉을 통해 손으로 보는 그림, 얼굴을 움직여 연주하는 디지털 악기, 관객의 목소리를 움직임으로 표현하는 로봇, 손의 촉각을 빛으로 변환하는 테이블, 시각장애인의 점자를 소리로 말해 주는 장치, 관객의 심장박동으로 연주하는 화합의 종 등 국내외의 전자예술가 총 열 팀의 흥미진진한 작품들을 한 자리에서 감상 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기회입니다.

모든 사람이 서로 다른 외모와 성격을 갖고 있듯이, 장애 역시 결합이 아닌 '다름'입니다. 이를 다양성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장애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들을 찾아보고자 이번 전시를 기획하였습니다. 관람객이 작품을 통해 시각과 청각 그리고 촉각을 넘나드는 창의적이고 다양한 감각 전이를 즐기는 동안, 장애와 비장애를 나누는 사회적 판단 기준들 역시 교란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모호해진 그 나뉠의 경계가 장애의 있고 없음을 따져 만들어낸 기존의 사회적 편견을 허물 수 있는 열쇠로 작용하기를 바랍니다.

90년대 후반 이후, 대중에게 다가가기 위한 새로운 화두와 표현 매체를 찾아 나선 예술계의 상황과 일반인들에게 공학을 보다 친숙하게 알려려는 과학계의 분위기가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맞물리면서, 전자예술은 자연스럽게 세상의 주목을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십여 년간 '예술과 과학의 만남', '쌍방향 소통성', 그리고 '놀이와 게임' 등을 화두로 내건 크고 작은 전시들은 테크놀로지의 미학적 해석과 그 새로움 자체에만 초점을 두면서, 콘텐츠 중심의 다원화나 보다 구체적인 사회/정치적 이슈들을 심도있게 다루는 것에는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미적 표현의 중요성 이상으로 예술이 가진 또 다른 중요한 의미는 인간의 상상력을 자극하여 사고의 틀을 확장하는데 있습니다. <thisAbility vs. Disability> 전시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장애'에 대한 정형화된 사회적 고정관념을 깨고, 그로 인해 서로간의 다름을 가슴으로 인정하며 상대방을 이해하는데 보다 자유로운 시선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글 | 전병삼